

## 심장질환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

# 좁아지고 막힌 혈관 약물과 수술로 뚫어줘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동맥경화가 심장의 관상동맥에 일어나면,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심장근육에 산소부족이 일어나 가슴이 조여 들고 무거운 돌로 눌러 놓은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가슴 혹은 복부 등에 나타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고 특히 통증이 15분 이상 진행될 때는 가까운 응급실에서 곧바로 심장을 검사하는 것이 심근경색 등에 의한 치사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 »» 심장질환 여러검사 통해 진단

심장혈관질환은 특징적인 흉통과 니트로글리세린 효과로 진단이 가능하며 심전도검사,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심장핵의학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이 도움이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관상동맥을 촬영하여 혈관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 심전도

몸의 표면에서 피부에 부착한 전극 판을 통해서 심장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기록한 것이 심전도다. 심장 전기의 발생과 전달의 이상, 심장의 구조적 또는 생리적 이상을 알 수 있어서 모든 심장병 환자에서 간편하게 항상 시행되고 있는 검사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중요한 심장병을 진단하는 데 특히 좋다. 그러나 잠깐 있다가 저절로 소실되는 심장병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심장 상태를 기록하는 일반 심전도로는 진단이 안 될 수가 많으므로 이때는 휴대용 심전도 기록기를 통해 24~48시간동안 계속 심장상태를 기록하는 활동 중 심전도(또는 홀터 심전도)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심전도를 기록하는 사건 기록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 • 심장 초음파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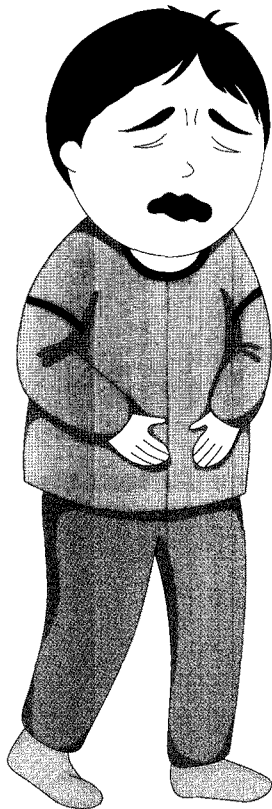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과 대동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모든 방향에서 절단된 단면을 볼 수 있게 하여, 심장과 혈관의 내부 구조 및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검사로서 심장병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심장 초음파검사는 심장병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의 하나가 되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20~30분 정도이고 복부 초음파검사와는 달리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 • 운동부하검사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활동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슴에 심전도를 붙이고 팔에는 혈압계를 달고 벨트 위를 달리는 검사로서, 3분 간격으로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경사가 급해지게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힘차게 뛰어야 한다.

운동부하검사는 약 30분 가량 걸리며, 검사 전에 가벼운 복장으로 오고 가능하면 식사를 하지 않고 뛰는 것이 좋다. 심장병을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정하고 운동처방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 • 심도자검사 및 심혈관조영술

심도자검사는 심장과 혈관 안에 가느다란 관(카테타)을 사타구니나 손목혈관을 통해 집어넣고 압력이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심혈관 조영술은 심장이나 혈관 내에 조영제라고 하는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여, 심장이나 혈관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적 이상을 정밀 진단하는 방법이다.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해주는 약물(조영제)을 가느다란 튜브(심도자)를 통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영화를 찍듯이 움직이는 심장과 관상동맥을 촬영한다.

가느다란 관은 국소마취 하에 삽입하므로 국소마취 시에만 약간의 통증이 있을 뿐 큰 불편은 없으며 검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30~60분 정도 소요되고 팔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을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당일 퇴원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도관 삽입 부위의 완전한 지혈을 위해서 검사 다음 날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막힌 혈관의 부위와 심한 정도를 밝혀주는

중요한 방법이고 약물로 치료할 것인지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이다.

#### • 심장핵의학검사

관상동맥이 좁아진 경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위와 피가 부족한 심근 범위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시행하고 검사 시간은 약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작은 주사기로 소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 받은 후 누워서 감마 카메라로 찍는다.

#### »» 혈관 넓히는 약과 수술로 치료

당뇨병은 철저히 치료하고 비만한 경우 체중을 줄이며 금연은 절대적이다. 고지혈증이 오지 않도록 식사요법을 하고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한다.

관상동맥 질환에는 혈관을 넓히는 효과적인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특히 니트로 글리세린은 흉통 발작 시에 사용하는 응급약으로 알약과 스프레이가 있으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이외에 칼슘길항제, 베타차단제 등도 같이 사용되며 아스피린 제제는 혈액 내의 혈소판이 관상동맥의 좁아진 내강에 달라 붙어서 미세한 혈전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예방 목적으로 평생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란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를 풍선 혹은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하여 협착상태를 해소해 주는 방법이다.

내과적 치료 특히 관동맥 성형술이 여의치 않은 경우 행해지며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리에 있는 정맥(대복재정맥, 내유동맥)을 주로 사용한다.

#### 정정합니다!

월간당뇨 2011년 1월호 52~53페이지에 게재 된 기사 중 국제당뇨병연맹(IDF) 월간지 「Diabetes Voice」의 원본 내용이 잘못 번역된 것이 있어 정정합니다.

• 53페이지 왼쪽 상단 13째줄 :

‘그 예로 유럽에서는 인슐린의 판매를 란투스에서 다른 인슐린 제제로 바꿨다’ 를 ‘예를들어, 유럽에서는 란투스에서 다른 인슐린 제제로 매출이 이동하지 않았다’ 로 정정합니다